

# 한국의 비식민화와 종속발전

Decolonization and Dependent Development in Korea

1

2025년 8월 23일  
홍종욱 (서울대 인문학연구원)

## 1. 한국은 식민지인가?

- 1) 김명식의 비식민화론
- 2) 식민지 근대화론과 비식민화

## 2.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

- 1) 사적 유물론과 식민지
- 2) 제국주의의 양면성과 식민지 반봉건 사회

## 3. 식민지 제국의 해체

- 1) 동아협동체와 내선일체
- 2) 해방과 신탁통치

## 4. 분단과 식민주의 비판

- 1) 북한의 주체 노선과 남한 혁명론
- 2) 남한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

## 5. 후식민 한국의 종속과 발전

- 1) 가지무라 히데키의 종속발전론
- 2) 안병직의 중진자본주의론

# 1. 한국은 식민지인가?

## 1) 김명식의 비식민화론

- 1930년 전후 교육 확대와 산업 발전을 사회주의자 김명식은 '비식민지화'라고 설명.
- “기미운동(3·1운동—인용자) 이후의 조선의 비식민지화는 경무 제일주의가 산업 제일주의로 변하는 과정에서 제1기가 진행되었고, 소위 지방의회 조직 과정에서 제2기가 진행되었고, 그 제3기 즉 완성기는 중앙의회 조직 과정이 될 것”
- “비식민지화로 말미암아서의 부르주아 민권은 보장... 당선한 조선인 의원의 조선에 대한 의식이 다른(일본인—인용자) 의원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은 각 부회(府會) 및 읍회(邑會)를 통하여 완전히 입증”
- “자본적 국가 단위로 비식민지화하는 일체 식민지의 경제 관계”에 의해 중국에는 “대립자와 대립 사실까지도 몰각”하게 될 것을 우려.

# 1. 한국은 식민지인가?

## 2) 식민지 근대화와 비식민화

-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족자결 원칙 확산. 여러 식민지에서 자치를 보장하고 독립을 약속. 3·1운동과 뒤를 이은 ‘문화정치’는 세계적인 비식민화(decolonization) 흐름의 한국적 표현.
- 1926년 코민테른에서 인도 공산주의자 로이(M. N. Roy)는 로이는 인도의 공업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새로운 정책과 그 영향을 ‘declozation’이라는 용어로 설명.
-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 쿠시넨은 ‘비식민화’를 ‘위험한 용어’라고 규정. 조선에 관한 12월 테제는 조선을 “단지 일본 제국주의의 농업 및 천연자원 기지일 뿐”인 ‘전형적인 식민지’라고 규정.

# 1. 한국은 식민지인가?

## 2) 식민지 근대화와 비식민화

- 식민지 근대화는 비식민화의 토대. 비식민화의 방향은 독립, 자치, 동화.
- 전 경성제대 교수 스즈키 다케오, “일본의 조선 통치”는 “소위 식민지 지배를 지향한 것은 아니”라며 식민지 근대화론/비식민화론을 전개.
- 김명식, “외래 자본에 압축되어 조선인의 발전이 저지된 것을 만약 숫자로써 표시할 수 있다 하면 결코 큰 숫자일 것이다. 또 인명의 불행은 숫자로써 계산할 바 아니다.” 식민지 시혜론에 대한 비판. 비식민화가 토착 부르주아지에게 이로울 뿐이고 대다수 인도 민중에게는 착취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로이의 시대 인식과 유사.

## 2.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

### 1) 사적 유물론과 식민지

- 마르크스의 『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』(1859) 「서문」, “아시아적, 고대적, 봉건적, 그리고 현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들을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순차적인 시기들”
- 서구 자본주의와 만나기 직전의 중국 사회, 아시아적 생산양식(트로츠키)=세계 자본주의 체제 vs 봉건사회(스탈린)=일국사적 발전단계론.
- 1928년 코민테른 제6회 대회, ‘반(半)식민지 반(半)봉건’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‘반제반봉건 혁명론’ 제기.
- ‘반(半)봉건’이라는 개념,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의 결합. 신 종속이론의 사미르 아민(Samir Amin)이 ‘절합(articulation)’이라고 부른 주변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생산양식의 이종 혼합에 대한 설명을 선취.

## 2.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

### 2) 제국주의의 양면성과 식민지 반봉건 사회

-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수 박문규, 「농촌사회분화 기점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」(1933). 토지 영유의 근대적 성질과 영세농적 생산양식과의 모순 위에 반봉건적인 영세농 및 소작 관계가 성립했다고 분석.
- 전 조선공산당원 인정식, 「토지소유의 역사성-박문규씨에 대한 비판을 주로」(1936). '토지 영유의 근대자본성'이라는 환상을 설정함으로써 당면한 민주주의적 과제의 모든 의의를 말살하고 '소시얼 데모크라시'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고 비판.
- 박문규의 주장을 자본주의적 <생산관계=소유관계>와 봉건적 수공업적 <생산력=생산양식>의 대립으로 정리한 뒤, 그러한 모순이 성립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생산력에 의한 넓은 생산관계의 극복이라는 역사적 발달의 전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비판.

## 2.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

### 2) 제국주의의 양면성과 식민지 반봉건 사회

- 전 공산당원 박문병, 「조선 농업의 구조적 특질」(1936). 인정식이 “사적 유물론의 기계적 공식적 파악의 한 개의 전형을 대표”한다고 지적.
- 스스로는 '잠정적으로 생산력-생산관계라는 사적유물론 공식의 부정자'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. “조선은 무엇이냐...조선은 식민지이다. 이것이 금일의 조선을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조선의 정의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.”
- 제국주의 양면성 인식. “우리의 농업 생산이 일반적으로 오늘 아직 봉건적 소생산양식에 종속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천연 자본에 지배되어 있다는 일견 역설적 관계야말로 우리 농촌의 전 모순의 집중적 표현”이라는 노로 에이타로의 주장을 인용하고 “조선 농업에 있어서 끝없이 타당함을 본다”고 덧붙임.

### 3. 식민지 제국의 해체

#### 1) 동아협동체와 내선일체

- 1938년 11월 일본 정부의 ‘동아신질서’ 성명.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일본 국내적으로는 반자본주의 혁신 정책을 표방한 혁신 좌파의 동아협동체론을 채택.
- 장제스(蔣介石), 과거 일본이 ‘일한 불가분’ 등의 말로 한국인을 현혹하여 한국을 ‘병탄’한 사실을 들며 동아협동체란 ‘중일합병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.
- 잡지 『삼천리』 1939년 1월에 「동아협동체와 조선」 특집. 그 논리는 첫째, 일본 정부의 반자본주의적 혁신 정책에 호응하는 통제경제론, 둘째, 동아협동체론에 기대어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족협화론.
- 전 조선공산당원으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상임간사 김한경, 내선일체 운동의 방법론을 ‘민족동화론’과 ‘민족협동론’으로 나눈 뒤, “일체하면 동화를 의미한다는 조급한 상식적 판단을 떠나서 현실의 실재 조건을 구체적으로 포착”해야 한다고 밝힘.
- 아나키스트였다가 적극적 친일로 돌아선 현영섭, 내선일체 인식을 ‘협화적 내선일체’와 ‘철저일체’로 나누고 “반도지식계급의 대부분이 협화적 내선일체론자”라고 개탄.

### 3. 식민지 제국의 해체

#### 2) 해방과 신탁통치

- 태평양 전쟁기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미·영·중·소 4개국에 의한 국제 신탁통치 구상을 굳힘.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공동관리 즉 신탁통치 반대 표명.
-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기. 다만 한국의 독립 시기에 대해 ‘적절한 시기’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제 신탁통치를 위한 근거를 남김.
- 연안 독립동맹의 박일우, 1945년 5월 중국공산당 제7회 대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.
- 국제연합(UN)의 신탁통치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계승 발전시킨 것. 위임통치에도 부정적이던 한국인이 해방 이후 시점에서 신탁통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.
- 가지무라 히데키는 “5년간 참는 쪽이 그나마 현명했던 것이 아닌가”라는 ‘객관주의’적인 입장을 비판하고, 신탁통치에 대해 “조선 인민이 커다란 의문을 느낀 것은 당연”하다고 평가.

## 4. 분단과 식민주의 비판

### 1) 북한의 주체 노선과 남한 혁명론

- 1956년 ‘8월 전원회의 사건’, 소련파와 연안파가 힘을 합쳐 김일성 개인 지배에 도전. 김일성으로서는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과제.
- 1956년 8월의 대립을 경제 노선에서 보자면 연안파 및 소련파의 주장은 중공업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소비재 생산을 강조하는 국제분업론. 1963년 6월 12일자 노동신문 사설 「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」에서 국제분업이라는 이름 아래 부등가교환을 강요하는 소련을 비판.
- 1963년에 베이징을 방문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은 “1956년은 제2의 해방”이었다고 발언.

## 4. 분단과 식민주의 비판

### 1) 북한의 주체 노선과 남한 혁명론

- 북한의 사회과학과 남조선 혁명론은 식민지 시기의 이론적 전통을 계승. 1960년대가 되자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 건설기에 접어든 북한과 식민지 반봉건사회에 머물러 있는 남한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혁명 전략을 검토.
- 1967년 『민주조선』, 남한이 ‘미제의 식민지 군사기지’이고 “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봉건적 생산 관계가 밀접히 얽혀” 있는 점에서 ‘식민지 반봉건 사회’라고 규정.
-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식민지 반봉건론을 대신하여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 대두. 식민지 반봉건사회도 자본주의의 특수한 유형으로 설명되었던 점을 떠올리면 식민지 반봉건사회론과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.

## 4. 분단과 식민주의 비판

### 2) 남한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

-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론은 다양한 학문분과에 걸쳐 커다란 영향. 당시 권력과 지식을 이어주는 진리체제(regime of truth). 미국으로서는 탈식민화를 지도하며 제3세계 혁명을 패퇴시키려는 목적.
- 라이샤워 등의 동양문화사(*East Asia: The Great Tradition*, 1960; *East Asia: The Great Transformation*, 1965), 일본이 “아시아 국가 중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는가”라고 물은 뒤, 답을 봉건제의 존재에서 구함. 일본이 아시아 근대화의 모델이 되기 어려움.
- 아시아 근대화에서 일본 자본과 미국 민주주의의 역할 강조. 1960년대 이후 한국 지식인의 정체성론 비판과 내재적 발전론 추구, 한일회담 반대, 반공 민주주의 비판은 미국발 근대화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.

## 4. 분단과 식민주의 비판

### 2) 남한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

- 박희범, “식민정책이 후진국 근대화를 저해한 제효과에 대해, 그의 저서를 통하여 한마디도 언급이 없을뿐더러 교묘하게 선진경제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”고 로스토우를 비판.
-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 역시 근대화론을 신식민주의라고 비판. “침략자가 마치 피침략자를 근대화했다는 듯한 논의(라이샤워, 로스토우 등)”를 ‘현대의 신화’라고 공격.
- 근대화론이 실패한 지점에서 종속이론 소개. 근대화론이 가정하고 있는 발전의 가능성을 한국의 현실에서 쉽게 찾지 못함. 다만 종속이론은 한국 사회과학에서 혁명론보다는 전유된 발전론으로 기능.

## 5. 후식민 한국의 종속과 발전

### 1) 가지무라 히데키의 종속발전론

- 가지무라 히데키, 한국 자본주의를 '종속발전'이라는 개념으로 설명. "식민지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라는 공식주의 견해와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로 보는 실용주의적 견해"가 존재한다고 보고, 자신은 후자를 옹호.
- '상이한 생산양식의 이중 혼합성'에 대한 주목하여,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과 사미르 아민의 주변부 사회구성체론의 결합을 시도. '전(前)자본주의 사회구성체 →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 → 주변자본주의 사회구성체'라는 주변부 '종속 경제'의 법칙을 제시.
- 1980년대 후반 사회구성체 논쟁. 논쟁의 제2단계로 넘어가면서 식민지기는 물론 해방 이후까지도 종속성 및 봉건성이 변함없이 지속한다고 보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 대두. 가지무라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확산의 '원흉'으로 지목됨.
-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을 직시. '닉스(NICs)형 종속발전'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자본주의 전개를 설명.

## 5. 후식민 한국의 종속과 발전

### 2) 안병직의 종진자본주의론

- 안병직은 1977년의 논문에서 “반식민지 혹은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”라고 질문.
- ‘근대화론’에 대해 “민족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획득한 이론적 무기들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론으로 대체해 버린 결함”이 있다고 비판.
- 1985년의 「조선에 있어서 (반)식민지·반봉건사회의 형성과 일본 제국주의」를 통해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이론화를 시도.

## 5. 후식민 한국의 종속과 발전

### 2) 안병직의 중진자본주의론

- 1985~86년 일본에 머물며 나카무라 사토루(中村哲)의 중진자본주의론의 영향을 받음.
- 1989년 「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」라는 제하에 1970~80년대 한국의 닉스(NICs)적 성장에 주목하여 탈종속의 전망 아래 한국 자본주의의 성공적 발전을 평가하는 글을 발표.
- 1993년에는 “중진 자본주의론이 신식민지 국가 독점자본주의론이나 주변부 자본주의론과는 달리, 한국경제를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라는 서로 차원이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인식하려는 것이 아니라, 계급모순이라는 단일한 시각을 가지고 인식하려고 하고 있음이 이해되었으면” 한다고 밝힘.